지역 상장사 3분기 영업 '실속없네'

매출·영업이익 늘었지만 유가 급등에 순익 작년비 66% 감소

1,000원어치 팔아 66원 남겨 … 부채비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외화내빈' 현상을 보였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22개 상장사의 올해 3.4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으나 순익은 대폭 감소해 실속 없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개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조3천8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5%인 5천834억원, 영업이익도 2천8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2%인 76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86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5.89%인 1천677억원이나 감소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이같은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은 5.46%포인트가 높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86.71%포인트 낮은 것이다.

'외화내빈' 현상을 보인 원인은 국내 경기 성장세(5%대)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였지만 유가급등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일부 기업의 지분법 평가손실이 실적에 반영된 것도 순이익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할 경우 지역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13.69%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대비 1.0% 포인트 증가한 6.6%를 기록했다. 1천원어치를 팔아 66원의 영업이익을 낸 셈이다.

22개사중 금호산업, 광주신세계, 조선내화 등 14개사는 영업 흑자를, 금호타이어, 폴리플러스, 해원에스티 등 8개사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행남자기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엠앤에스는 흑자전환한 반면 디지털텍(가전용 콘덴서 업체), 대유디엠씨(카 시트·핸들), 금호타이어는 적자전환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 상장사들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에 비해 6.42%인 2천59억원이 늘어 3조4천145억원을 기록했으나 부채총계는 같은기간 11.03%인 5천726억원 증가한 5조7천640억원이었다.

이에따라 9월말 현재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1.80%에 비해 7.01% 포인트가 늘어난 168.81%로 전국 평균치(79.93%)을 크게 웃돌았다.

증권선물거래소 김훈휘 광주사무소장은 "전반적으로 장사를 잘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올 3분기(누적) 영업실적 (단위:억원, %)

■ 코스피

회사명	순이익	증감율
금호산업	356	-81.41
광주신세계	187	50.94
조선내화	150	-16.93
화천기공	96	46.53
셀런	80	36.28
보해양조	43	-22.38
디에스알제강	36	265.28
동아에스텍	28	-32.85
엠앤에스	14	흑자전환
로케트전기	-8	적자지속
고려시멘트	-26	적자지속
대유디엠씨	-36	적자전환
금호타이어	-137	적자전환

■ 코스닥

회사명	순이익	증감율
성원파이프	72	162.40
부국철강	45	-17.66
행남자기	22	흑자전환
와이엔텍	18	-6.10
서산	14	10,793.52
파루	-1	적자지속
디지털텍	-3	적자전환
해원에스티	-36	적자지속
폴리플러스	-55	적자지속
광주전남 (22개사) 합계	868	-65.89
전국	354,365	20.82

中 창춘에 '금호大路' 등장

금호타이어 지역 발전 기여에 도로명 제공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 '금호대로(錦湖大路)'가 등장했다. 금호타이어는 20일 "최근 금호타이어 창춘공장 앞길에서 금호대로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창춘시는 금호타이어 창춘공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표시로 창춘공장 앞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 '금호대로'라고 명명했다.

길이 2.5km,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이어져 기업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인 창춘-쓰핑(四平)간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연결될 경우 '금호'브랜드 노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도로 명칭을 외국 기업에 영구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창춘시 내에서도 한국기업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부지 22만㎡ 규모의 창춘공장은 1억 5천만불을 투자해 연간 315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1억 800만불을 추가로 투자해 연간 630만개 생산규모의 제 2기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오세철(왼쪽 세번째) 금호타이어 사장이 최근 창춘시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시 금호타이어 공장 앞길에서 금호대로 도로표시 비석 제막식 행사를 갖고 있다.

현대·기아차, 中國 공략 재시동

아반떼·쎄라토 현지형 모델 잇따라 선보여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 맞춤형 모델을 동시에 선보이며 올 들어 판매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시장 '재탈환'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19일 중국 광저우 국제전람중심에서 개최중인 '2007 광저우 모터쇼'를 통해 중국형 아반떼 'HDC'(현대차)와 중국형 쎄라토(기아차)를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첫 중국 현지 맞춤형 모델인 'HDC'는 크고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중국시장의 트렌드가 반영돼 디자인됐다. 후드와 전고를 높이고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택, 중대형 차급으로 보여지도록 했다.

현대차는 중국인들의 기호와 감성에 맞는 차량 제작을 위해 중국 소비자 및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차명 역시 중국내 전국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차의 중국형 쎄라토는 기존 쎄라토에 비해 역동성 및 볼륨감이 강조됐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는 다이내믹한 디자인이 적용됐고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졌다고 기아차는 소개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시장내 준중형 세단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35%에 달하는 만큼 HDC와 신형 쎄라토 등 중국형 모델을 통해 향후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의 'HDC'는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베이징현대의 베이징 2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며, 신형 쎄라토는 올연말 준공되는 둥펑위에다기아 제2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연합뉴스

금융·제조업체 반기 실적 '호전'

코스닥시장 3월 결산법인

상반기 영업 이익 24% ↑

코스닥시장의 3월 결산법인들이 올 상반기(4~9월)에 금융사와 일부 제조업체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 3월 결산법인 반기 및 6월 결산법인 1·4분기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 17개사의 상반기 총 매출액은 7천16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천144억원으로 24.1%, 순이익은 891억원으로 15.9% 각각 늘어났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금융사들이 주도했다. 금융업 5개사는 총 매출액(영업수익)이 3천636억원으로 61.1% 늘고, 영업이익은 975억원으로 21.7%, 순이익은 711억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체들도 대체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다. 비금융업 12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3천528억원으로 29.7% 늘고, 영업이익은 169억원으로 39.7%, 순이익은 180억원으로 46.3%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에쿠스 자선 골프대회' 현대자동차는 창사 4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해비치CC에서 고객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쿠스 자선 골프대회'를 갖고 대회 참가 고객들의 참가비 전액을 교통안전실천연합회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中企대출 또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건설·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대출, 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소호대출 증가세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부터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종별로 은행이 부담하는 대출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여신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 최저 적립률은 기존 0.7%에서 0.85%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특히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정상여신의 최저 적립률은 0.7%에서 1.2%로 0.5%포인트 높아진다. 통상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라가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 추가적인 위험관리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자금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연말결산 때 약 1조4천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다만 요주의 및 고정 이하 기업여신에 대한 최저 적립률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부동산 관련대출 및 소호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달업무 맞춤서비스

광주조달청-서구청 MOU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은 최근 광주시 서구(구청장 전주언)와 물자·용역·시설관련 조달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지자체와 조달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기는 광주 서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제안서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준호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양자간 협력약정 체결로 광주광역시 서구와 조달청 간 양질의 조달행정서비스 지원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진월-옥곡농협 합병, 광양동부농협으로

광양시 관내 진월농협과 옥곡농협이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을 결의했다.

두 농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농림부의 합병인가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2천631명, 자기자본 74억원, 자산규모 933억원 규모의 광양동부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번 진월-옥곡농협의 합병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유휴농지 및 농촌노동력의 부족문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 日 ANA

공항 인력 교환 근무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의 ANA와 공항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의 각 직원 2명은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등 상대방 공항에서 자사의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의전업무 및 카운터, 통역,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